

# 만추당귀 채종사업 힘 얻었다

## 특화작목 육성 지원요청에 평창군, 긍정적 검토 약속

약용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보급차원에서 생약협회는 내추대성 만추당귀를 평창군의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황인구 회장은 품종육성촉진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 연구관을 비롯 남정학 전무, 함승주 평창군 지부장과 함께 4월25일 권혁승 평창군수를 면담하고 '만추당귀 생산 및 보급 추진계획'에 따른 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가 평창군에 제출한 지원요망 사항은 △채종포 시범부지 20ha 무상 또는 저가 장기임대 △동절기 육묘시설(난방 비닐하우스) 1000평 △육묘·채종포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 지원등이다.

이에 대해 권혁승 평창군수는 "만추당귀를 군 농민들의 소득작목으로 특화 육성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단계별 지원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인 채종포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서 협회가 추진중인 만추당귀 종자 종묘 생산및 보급사업이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황인구 회장은 지난달 25일 권혁승 평창군수를 면담하고 만추당귀 생산 및 보급추진계획에 따른 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 인진쑥 과립차 제조법 개발

인진쑥을 과립차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진안속근약초시험장은 인진쑥의 고유한 쓴맛 때문에 젊은층에서 소비를 기피함에 따라 수요저변 확대를 위해 당분을 첨가한 과립차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진안속근약초시험장에 따르면 인진쑥 과립차 제조기술은 단오무렵에 가장 약효가 좋은 첫물 인진쑥을 수확, 선별 건조한 다음 말린 무게의 10배

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90℃에서 120분간 가열해 약리성분을 뽑아낸다. 이 추출물을 50℃ 이하에서 농축해 풍미를 유지한 과립을 생산한다. (문의:0655-433-7451)

### 백출 오미자등 710t 7월말 통관완료키로

2000년도 3차분 수급조절용 한약재로 △적하수오 10톤 △백출 360톤 △오미자 180톤 △황금 50톤 △구기자 60톤 △향부자 50톤등 총710톤이 수입된다.

이는 지난달 11일 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3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 결정된 것.

구기자는 생산시기를 고려, 6월10일까지 통관완료키로 했으며 기타 품목은 7월31일까지 통관 완료키로 했다.

천궁은 생산자단체가 차기 회의시까지 공급량, 가격등을 제시하여 수매를 전제로 하되 협의가 안될경우 수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평창군수와의 면담 이모저모

#### 지역특화만이 살길

0... "농사가 우리군의 기반이고 이제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역특화만이 살 길이라 생각한다"는 권혁승 평창군수는 "당귀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 매년 당귀축제도 개최하고, 전국 당귀 물동량을 평창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는 반면 만약 북한과의 경제협력 교류가 활발해지고 약용작물도 북한과의 계약 재배가 이뤄지게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지는거 아니냐"며 우리를 표하기도.

이에대해 황인구 회장은 "최근 여러분야에서 대북 사업 추진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지만 약용작물 계약 재배 부분은 여건상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작업으로 안다"며 "또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

#### 테마파크 활용도 바람직

0...성낙술 연구관은 '만추당귀' 품종육성 배경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만추당귀를 채종해서 육묘로 농가에 보급할 경우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함은 물론 당귀 외에도 대단위 약용작물 시범포를 조성해 테마파크로 운영하는 것도 군 홍보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 될것"이라고 의견을 개진.

또 중국시장 개방에 대한 권 군수의 우려에 대해 남정학 전무는 "국내산 당귀는 중국산과 기원이 전혀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개방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다양한 종의 확보차원에서, 해발 700~800mm정도의 고지대에서

중국산 당귀를 시험재배해보는 것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

#### 약초시범포 운영필요

0...만추당귀의 지역특화 사업 필요성에 대해 황인구 회장은 황기를 예로들어 "황기 주산지는 강원도 지역이지만 실제 황기시장이 크게 형성되는 곳은 가공시설이 활성화돼 있는 제천지역이며 다른 작목도 기존의 주산지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당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곳 평창장에서 전국 물동량과 시세를 좌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대단위 시범포와 가공공장 운영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필요가 있다"고 강조.

#### 농림부 지원 필요하다

0... "올 가을에 만추당귀 종자 1000kg을 채종해서 육묘하려면 당장 1만여평 규모라도 부지확보가 시급하다"는 함승주 지부장의 하소연에 권 군수는 "쓸만한 국유지나 공유지는 이미 장기임대에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 없으면 내 개인땅이라도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 권혁승 평창군수는 또 "농업지역이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군단위 자금은 한계가 있어 농림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깊이있게 검토한후 평창군 차원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농림부에 올릴것"이라고 말하고 평창군이 당귀 주산단지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희>

## 고려인삼 국제거래규제 품목서 제외 러시아 야생인삼만 지정

고려인삼이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ITES)'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수출감소 등의 우려를 덜게됐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지난달 15일 케냐 나이 로비에서 20일까지 계속된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고려인삼을 국제거래규제 품목에 포함시키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정해 러시아산 야생인삼만을 국제거래규제품목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고려인삼의 학명이 러시아 야생인삼과 같아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에서도 고려인삼을 규제품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남아국가들의 지지로 한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러시아의 제안이 채택됐다면 수출되는 고려인삼에는

야생삼이 아닌 재배인삼임을 알리는 정부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등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수출단가도 높아져 고려인삼이 중국산 인삼등에 해외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 홍삼제품 생산공장 중국현지 설립추진

한국인삼공사는 드링크류등 홍삼제품의 중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삼공사는 우선 홍삼원과 활력정 등 드링크류를 우선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8월 제품생산을 목표로 광둥성 지역의 공장을 물색중이다. 인삼공사는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생산비용과 물류비등 30%가량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구약령시 축제 오는 13일 개최 약초분재전시·약썰기 대회등 행사 다채

대구약령시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기간으로 대구시 중구 약전골목 일대에서 펼쳐진다.

약령시축제는 지난해까지 매년 가을 '달구벌 축제'의 한 행사로 열렸으나 올해부터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이사장 신진취)가 주관해 독립

행사로 치뤄지게 된다.

한방약재의 모든것을 볼수 있는 약령시 행사에는 5월13일 길놀이, 고유제, 약령시 개장식 등을 시작으로 성대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우리 전통 약초 400가지로 만드는 약초꽃동산, 약초분재, 한방음식 전시, 전승기예의 하나인 약

썰기 경연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쥘, 풀문화 솜씨 재현, 약차시음회, 한방떡 맛사랑, 약썰기, 약초이를 맞추기대회 및 달구벌 가요제 등 각종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동안 약초·차·한약재를 얹어 판매하고 한약종자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이밖에 16일에는 이어령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우리 문화 특별강연'이 있으며 17일에는 탤런트 전광렬씨 팬 사인회도 열린다.